

대행 스님

자기 주인공이라는 보배 그 자체를 잃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함께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하기 이전에 서로가, 각자 자기가 자기 발견하는 데 목적을 삼는 공부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했던 말을 또 되하게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만날 되풀이하고 있는 거니까요. 불교다 하면 불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 교라는 건 아주 옳고 바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면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지구 안에서, 즉 독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라고 평이 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마 인간인 것 같습니다. 지붕에서 벌레가 하나 뚝 떨어지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하니까 뭐가 됐느냐 하면 매미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매미는 전자에 자기가 벌레로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또 자기가 매미가 됐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자기가 전자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또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해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옷을 입고 나올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지금 한 발 한 발…, 평소에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저는 옷을 벗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옷을 벗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에 생겨났다면 벌써 "나는 옷을 벗기 위해서 생겨났다." 즉 죽기 위해서 생겨났다, 또 죽는다면 "살기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하겠지마는 그걸 첨보해서 둘이 아니게 생각을 한다면 생사윤회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죠. 끄달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해가 가도록 말을 하느냐? 첫째 내 몸, 둘째 가정, 셋째 사회, 넷째 국가, 다섯째 세계 전체에 우리가 너무도 하는 일도 많지만 오늘은 우리 몸으로부터 얘길 잠깐 해 드리죠.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이 태어날 때는…,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삼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즉 말하자면 나 자체, 그러니까 모든 이 마음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그 근원 자체가 한데 합쳐져서,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지면 어린애가 되듯이,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져도 씨가 없으면 안 되는 이치가 있다고 봅니다. 삼합이 한데 합쳐지니까 인간 하나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것을 일컬어 삼신이라고 우리가 전자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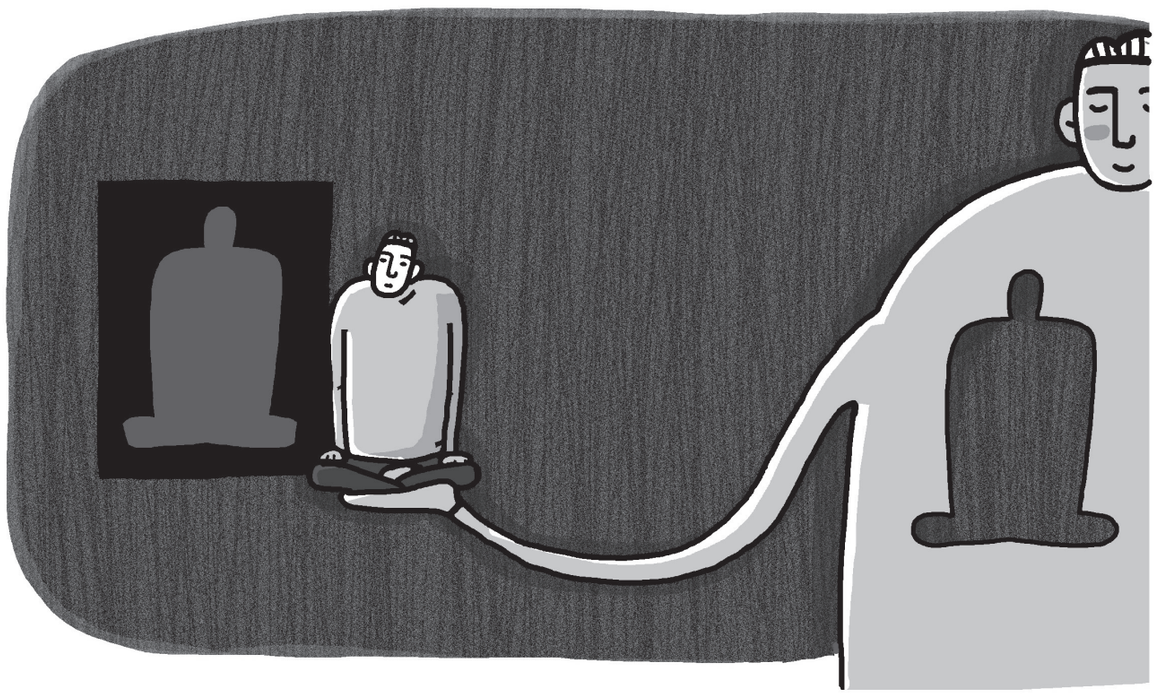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인간이 태어날 때 말입니다, 물주머니에서 터져서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수화풍에서부터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니 그것이 바로 큰 성을 이루었고, 성을 이루었으니 온기가 거기 등장을 했고 모든 것이, 이 삼라만상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우린 지금까지도 지수화풍을 떠나서는 못 삽니다. 지금 몸도 지수화풍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물질이 무엇인가? 내가 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태초에 생긴 자체가 무슨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바로 여러분의 그 몸속에 있는, 갖은 각색으로 해 가지고 있는 세균, 그 생명들입니다. 그 생명, 모습이 바로 태초의 자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 그렇게 각각 제 모습을 해 가지고 지금 수만 개가 돼 가지고 이 인간의 별성 하나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내가 나오고부터 이 세상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 태초의 모습이 하나가 수만 개가 돼 가지고 지금 몸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그 겹겹의 세포의 모든 것이 있는데, 선장은 누구냐 하면 자기의 모든 마음, 즉 말하자면 공생이다. 우리가 전체 합치면 공생이다, 공용이다, 공체다, 공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따져 본다면 내 몸 하나가 은하계도 될 수 있는 건가 하면 바로 혹성이기도 하고 별성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한시반시를 그냥 머무르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가, 이 세상 우주가 전체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몸이 자도 깨도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운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의 그 마음 하나를, 한생각을 잘하면 자기 몸을 잘 끌고 다닐 수가 있고, 한생각을 잘못하면 자기 몸을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실 때에 잘 끌고 가면 차도 성하고 일이 잘 성사가 되고, 잘못 끌고 가면, 어디 꼬라박기라도 하면 몸이 다치고 이러듯이 사람 몸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어떠한 쇼크를 받았다거나 이래도 그 몸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화기가 치밀어서 말입니다. 병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 자체를 어떻게 먹어야만 되느냐? 내가 나고서부터 세상은 일어난 거니까 나로부터 화두가 되며 나로부터 근원을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사대성인이 이렇게 말을 했죠. 자신을 알라고요. 자신을 알아야 남을 알고, 남을 알아야 서로 공생하는 거를 알고 공용하는 거를 알죠. 그럼으로써 한마음이 선장이라고 한다면 모든 이 중생들을 지금 배에 태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어느 종교를 나누어서 찾을 게 아니라, 전체 우리는 바로 공생이며 공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밥이나 해 놓고 떡이나 해 놓고 비는 것이 불법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등 동물이라고나 할까. 인간은 90%, 99%가 부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걸 보면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생각을 낼 줄 아니 그게 부처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 몸으로부터 마음을 움죽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몸을 움죽거리면서 오관을 통해서 우리가 움죽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초도 내 몸에 있고 화두도 내 몸에 있고, 참선이라는 것은 생활에서 똥을 누든 밥을 먹든 자든 깨든 참선입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하고 펜대를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참선입니다. 그건 자기 주인공으로 인하여 자기가 움죽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긴 바로 자기 주인에 의해서, 즉 운전수에 의해서 차가 움죽거리듯 그럴 뿐입니다. 인간은 이 오온으로써 바깥 경계를 보고 안으로 들입니다. 안으로 들여서 또 가미해 가지고 안에서 만법을 또 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찰나찰나 우리가 쉬지 않고 가는 그 도리, 하나도 고정됨이 없이, 눈도 고정된 게 없고 귀도 고정된 게 없고, 말도 고정된 게 없고 만남도 고정된 게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 관계상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내가 어느 때에 걸어갈 때에 나라고 할 수 있으며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으랴. 그래서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옛날부터 이런 예가 있죠. 사회에서 일을 하시려면, 또 가정에서 내 몸, 내 가정, 사회를 이끌고 나가시려면 이런 것쯤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에는 무(無)의 세계와 유(有)의 세계가 교류되지 않고 회전이 되지 않는다면 부딪칩니다. 에너지가, 내 에너지가, 내 마음먹은 것이 저분 상사한테 말을 하지 않고는 절대 올라가지 못하거든. 그러나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체 무전통신기, 이거는 뭘 뜻하느냐? 이것은 즉 듣는 것 천이통, 요 부분 하나를 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천체 망원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무전 망원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마음의 눈. 육의 눈이 아니라 마음속의 눈. 또 컴퓨터라고 그러면 숙명통을 말합니다. 요건 시쳇말로 그냥 이렇게 옮겨 놓는 겁니다. 또 탐지기는 타심통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육신통이다 하는 거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움죽거리는 이 지금 우리 육신 자체, 즉 무에서 움죽거리는 거, 유에서 움죽거리는 거, 우리가 마음을 내면 그대로, 즉 말하자면 내 모습 없는 모습이 그대로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가 그 하나만 있는 줄 알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한 분일지라도 한생각을 낸다면 두 개도 되고 만 개도 될 수 있고 천 개도 될 수 있는 그런 보배가 자기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망원경이니 통신기니 탐지기니 컴퓨터니 이러한 문제, 또 영사기니 책정기,

☞ 22면으로 계속

2020 謹賀新年 경자년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승가회 종도 일동
사부대중 일동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53-1
Tel 055)232-7819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